

본교 지도교수제 운영 점검

# “지도교수님, 4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면에서 계속

지도교수 변경 기회를 가지는 타 대학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서강대의 경우 지도교수가 무작위로 배정되지만 학생과 교수의 관심 분야가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학생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할 기회를 준다. 전공이 확정된 3~7학기 재학생은 본인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포털을 통해 지도교수를 선택한다. 소속 전공 내에서 5지망까지 지도교수를 고를 수 있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

지도교수제를 통괄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다. 교무팀, 학생지원부, 학사팀은 모두 지도교수제는 해당 부서 관할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부생과 교수 간 면담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권고 사항 역시 없다. 박재영(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도교수제에 대해 학교에서 한동안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지도교수 한 명이 과도하게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남정민(공과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재 7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해 자세하고 충분한 상담은 어렵다”며 “교수정원을 늘려 교수당 상담 학생 수를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제 활용할 수 있어야

지도교수제를 자체적으로 보완해 활용하

고 있는 단과대도 있었다. 경영대학은 1학년 세미나와 함께 지도교수가 무작위 배정되지만, 3~4학년 때 지도교수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지도교수와 친해질 수 있는 ‘지도교수 멘토링 데이’도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대학 행정실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4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고병완(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대 지도교수 멘토링 데이는 학생이 나중에 언제든 지도교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이라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진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원상(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과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으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며 “서로 얼굴을 익히고 편해져야 개인적인 상담도 이뤄지기 때문에 지도교수제와 프로그램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은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제(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LC)를 두고 있다. PLC를 통해 지도교수 한 명에게 학년당 1~2명의 학생이 배정된다. 6개 학년이 한 조를 이뤄 단체상담과 개인 상담을 진행한다. 선후배 간 관계와 지도교수와 학생 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다. 개인 상담을 했던 김동운(의과대 의학19) 씨



는 “지난 봄에도 국가고시에 필요한 실기시험을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수님께 도움받았다”고 전했다. 고준혁(의과대 의예22) 씨는 “교수님과 의 면담을 통해 진로나 학습과 관련된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상황에 자주 조언을 청하고 싶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과대 22학번인 박모 씨는 “고학번이나 졸업생과 교류가 없는 저학년 학생에게는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교수님뿐”이라며 “1학년 때 미리 지도교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전공을 이해하

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유원상 교수는 “최근 학생들이 교수에게 잘 다가오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답임선생님처럼 잘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 | 박지연·배연수 기자 press@일러스트 | 김정현 전문기자

2022 플라스틱 없는 소풍 메이커톤

##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도 환경 보호 실천가능”



소풍 메이커톤 참가자들이 친환경 소풍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다.

본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이 함께 주관한 ‘플라스틱 없는 소풍 메이커톤’이 지난 16일과 17일 온라인과 본교 서울캠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메이커톤(Makeathon)이란 Make와 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어보면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고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떻게 하면 환경친화적인 소풍이 가능할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기획됐다.

16일에는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전문가

강연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황건욱(대학원·환경생태공학과) 씨는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시도를 소개하며 “해양 플라스틱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플라스틱 문제까지 관심이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션카인드 김용규 대표는 스쿠버다이빙로서 다이빙하며 찍은 사진들을 통해 해양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전문 연구자가 아님에도 해양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썩음인’(쓰레기를 썩는 사람들) 리더 비키 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한 ‘담배꽂조 어택’

같은 캠페인을 소개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적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1장을 먹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소풍 메이커톤이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소풍에는 가족과 친구들로 이뤄진 21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나들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책이 될 시제품을 만들었다. 점심에는 각자 챙겨 온 다회용기에 음식과 음료를 받아 식사한 후 ‘쓰레기 줍깅’을 하며 소풍을 즐겼다. 최종 발표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와 시제품을 발표했다. 참가팀들은 기존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머쉬로폼’(버섯으로 만든 스티로폼), 기존 용기에 내용물을 다시 채워주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 소풍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우승한 ‘쓰레기 1도 없조’ 팀은 소풍 갔을 때 쉽게 사고 버리는 돗자리를 수거한 후 카드 지갑, 가방, 텀블러 케이스 등으로 재활용해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우승팀 최지현(건국대 경영20) 씨는 “환경 보호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돗자리를 재활용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글 | 김동우 기자 good@ 사진 | 한다빈 기자 binsoffthewall@

제9회 라틴아메리카 축제

## 성북천을 칠한 라틴의 빛



‘쭌바 댄스 배우기’ 시간에 댄서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다.

제9회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지난 17일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 11개국 대사관과 성북천 상인회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내·외국인이 중남미 국가의 문화와 음식, 공연 등을 교류하며 함께 즐기는 자리다. 부스 판매 대금의 일부는 다문화 가정에 전달된다.

분수마루에서는 세비체, 타코, 전통의상과 악기 체험 등 라틴의 맛과 멋을 전하는 22개 부스가 열렸다. 페루 부스에서는 소 내장 꼬치구이인 안티쿠초와 파리아다 등을 요리하고 엘살바도르 부스는 옥수수, 호떡과 비슷한 푸푸사스 등을 판매했다. 베네수엘라 부스에서 준비한 옥수수빵 아레빠는 금세 매진됐다. 앵무새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타코와 토르티야 등을 준비한 멕시코와 슈하스코를 판매한 브라질 부스였다. 아르헨티나 부스에서는 와인 시음회가 열렸다. 기념품 부스에서는 남미에서 만날 수 있는 알파카 인형, 장신구 등을 전시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판초, 전통 모자인 솜브레로, 자수 원피스 등을 입어볼 수 있었으며 마라카스, 안타라 등의 전통 악기도 연주해볼 수 있었다. 페루 부스 운영자 이와구마 마미는 “코로나 때문에 한창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친구를 도와 부스를 운영하게 돼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성북구 근처에 사는 김모 씨는 “홍보물을 보고 관심이

생겨 찾았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덕분에 재밌게 즐겼다”고 말했다.

무대 위에서는 쭌바 댄스 동호회 ‘팀루다스’ 외 8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팀루다스의 리더는 “외국 분들의 호응이 특히 좋아 무대가 더욱 신났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탱고와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 공연했으며 밴드 ‘엘잠보사브로소’는 라틴 음악 무대를 선보였다. 참여형 공연인 ‘쭌바 댄스 배우기’ 시간에는 관객들이 함께 춤을 따라 하며 즐겼다. 자연스레 무대에 올라 안무를 따라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기곡 ‘배싸매 무조’에 맞춰 함께 온 이와 눈을 맞추고 이마를 맞대며 포옹했다.

축제에 참여한 최모 씨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특정 부스에 줄이 너무 몰려 음식 부스가 더 많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 씨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스페인어를 연습하는 등 이야기가 잘 통해서 좋았다”고 전했다.

부스 진행, 통역 및 의전 봉사는 본교 서어서문학과 학생들이 진행했다. 봉사에 참석한 이주원(문과대 서문18) 씨는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본인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서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12월에는 유럽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글 | 심수연 기자 sue@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고려대학교 학문소통연구회 창립 15주년 심포지엄

## 열려있고 참여하는 대학 되길

본교 학문소통연구회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지난 22일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열렸다. ‘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교내외 구성원이 모여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성찰했다. 정진택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미래를 열기 위한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자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래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 있다”

며 “병원도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학문의 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은 ‘참여하는 대학’을 이야기했다. 김 전 총장은 “대학의 역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직접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공 지식만 가르치는 대학이 아닌 따뜻한 인재를 기르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재호 전 본교 총장은 “대학이 일률적인 지식을 전달해주

는 곳이 아니라 학생 학습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학부와 대학원이 단절되지 않는 등 국내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정승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인데 문제는 답을 틀린 대학이 바뀌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L&P 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은 “더 이상 통일성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라며 대학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good@